KLPGA가 LPGA 이겼다

1일 열린 여자프로골프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시상식에서 3일간 경기성적을 종합한 후 팀LPGA를 이긴 팀KLPGA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만에 챔피언스트로피 '탈환'…3연승 김아림, 대회 6전 전승 진기록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간판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주력인 한국(계) 선수들을 이겼다.

'팀KLPGA'는 1일 경북 경주시 블루원 디아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최종일 싱글매치 플레이에서 승점 7.5점을 따내 합계 승점 15-9로 '팀LPGA'를 제쳤다.

팀KLPGA는 이번 대회에서 13승 4무 7패를 기록했다. 우승 상금은 7억원. 팀LPGA는 4억원을 받았다.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은 KLPGA 투어 선수 13명과 LPGA 투어 한국(계) 선수 13명이 겨루는 팀 대항전이다.

5회째인 이 대회에서 팀KLPGA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승을 따내 종합 전적에서 2승 3패로 따라붙었다.

앞서 첫날 포볼 경기와 2라운드 포섬 경기에서 6승 3 무 3패로 우위를 점령했던 팀KLPGA는 최종일 싱글매치플레이에서도 7승 1무 4패로 팀LPGA를 압도했다.

이날 팀KLPGA는 싱글매치 첫 주자 조정민(25)이 리디아 고(뉴질랜드)에 3홀 차로 지고, 신인왕 대결에서 조아연(19)이 이정은(23)에 5홀 차로 대패하면서 승점 1점 차로 쫓겼다.

그러나 주장 김지현(28)이 신지은(27)을 2홀 차로 따돌려 한숨을 돌렸고, 장하나(27)가 '절친' 대니엘 강(미국)과 접전 끝에 2홀 차로 이기면서 팀KLPGA는 우승을 향해 내달렸다.

김아림(24)이 유소연(28)을 4홀 차로 이기고, 박민지(21)가 양희영(30)을 1홀 차로 제치면서 '매직 넘버' 승점 1점을 남긴 팀KLPGA는 8번째 주자 박채윤(25)이 허미정(30)을 3홀차로 꺾으면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했다.

팀KLPGA는 우승이 확정된 뒤에도 이다연(22), 임희정(19)이 각각 이미향(26), 이민지(호주)에게 승리하고 최예림(20)이 김효주(24)와 비기면서 승점 2.5점을 추가, 역대 최다 승점차 기록을 완성했다.

김아림(24)은 이번 대회에서 3전 전승을 비롯해 2년 동안 6전 전승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이 대회에서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은 선수는 김아림이 유일하다.

김아림은 우승팀 최우수 선수에 뽑혔다.

또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한 박민지와 임희정(19)은 3전 전승을 올려 신예 돌풍을 일으켰다.

이날 싱글 매치 플레이에는 출전하지 않은 대회 호스트 박인비는 "KLPGA투어 선수들의 실력이 너무 좋아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IA '무적 신분' 홍상삼 영입

두산, 재계약 불가 통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1일 무적 신분인 투수 홍상삼(29·사진)을 영입했다.

최근 두산 베어스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홍상삼은 이로써 KIA 유니폼을 입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홍상삼은 영일초-충암중-충암고를 졸업하고 2008년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3라운드로 두산의 지명을 받았다.

홍상삼은 2009년 KBO리그에 데뷔한 뒤 10시즌 동안 228경기에 출전, 25승 37홀드 11세이브 평균자책점 4.84를 기록 중이다.

홍상삼은 조만간 KIA에 합류해 몸 상태 등을 점검 받을 예정이며, KIA 코칭스태프는 논의를 통해 홍상삼의 향후 스케줄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희중 기자

'골프 여제' 박인비, 골프위크 선정

'최근 10년간 최고 여자 선수'

'골프 여제' 박인비(31)가 최근 10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가장 훌륭한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0년간 베스트 LPGA 투어 선수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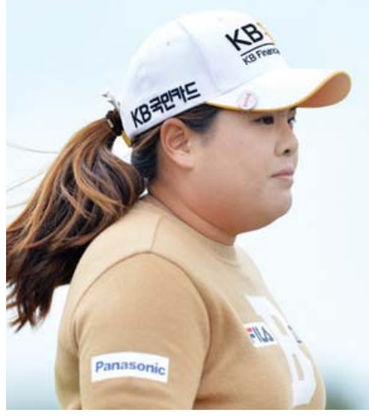
골프위크는 박인비에 대해 "LPGA 명예의 전당 회원이며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6주간 세계 1위를 지켰다"며 "올림픽 금메달과 최근 10년 사이에 메이저 6승을 따냈으며 2013년에는 메이저 대회에서 3연승을 달성했다"고 이력을 설명했다.

박인비는 LPGA 투어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 인터넷 팬 투표에서도 전체 톱 시드를 받았다.

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의 최근 10년간 최고 선수 선정은 후보 16명에 대한 팬 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뤄지며 2020년 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골프위크는 박인비에 이어 쩡야니(대만)를 2위에 올려놨고 리디아 고(뉴질랜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에리야 쭈타누깐(태국) 순으로 5위까지 지목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렉시 톰프슨(미국), 펑산산(중국), 크리스티 커(미국),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브룩 헨더슨(캐나다) 순이었다. /연합뉴스



1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K리그1 38라운드 전북 현대와 강원FC의 경기. 전북 손준호(오른쪽)가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K리그1 3연패

최종전서 강원 꺾고 '역전 우승'

포항에 발목 울산 다득점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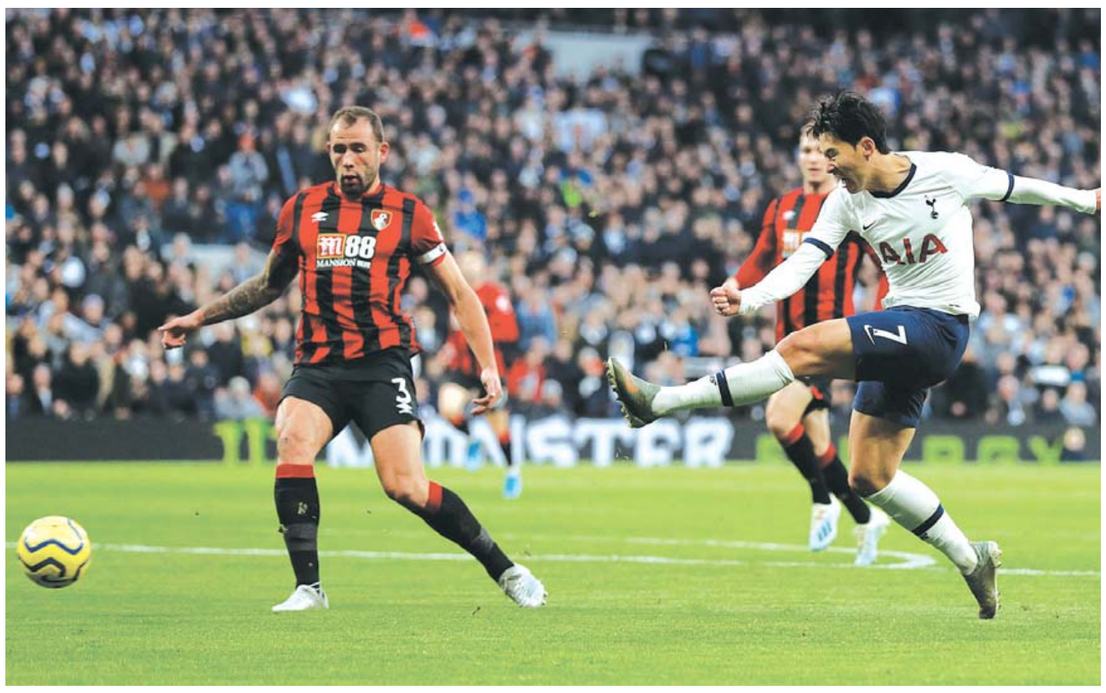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울산 현대와 '현대가(家) 우승 전쟁'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K리그 3연패와 더불어 역대 최다우승(7회) 타이를 기록했다.

전북은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19 파이널A 38라운드 최종전에서 전반 39분 손준호의 헤딩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승점 79(72득점)가 된 전북은 이날 포항 스틸러스에 발목을 잡힌 울산 현대(승점 79·71득점)와 승점이 같아졌지만, 다득점 우선 원칙에 앞서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전북은 K리그1 3연패(2017년·2018년·2019년)와 함께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일화가 작성한 역대 최다 우승(7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북이 작성한 K리그 3연패는 성남(2회)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오른쪽)이 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슛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손흥민,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펄펄'

EPL 본머스戰 2도움…모리뉴 체제 3연승 견인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멀티 도움'으로 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조제 모리뉴 감독 부임 이후 3연승 행진에 힘을 보탰다.

토트넘은 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본머스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홈 경기를 치러 델리 알리가 두 골을 터트리는 활약 속에 3-2로 이겼다.

해리 케인을 최전방에 세운 4-2-3-1 포메이션에서 왼쪽 측면 공격을 맡은 손흥민은 비록 골 맛은 보지 못했으나 전반 21분 알리의 선제골과 후반 24분 무사 시소코의 쐐기 골을 도우며 제 몫을 다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5, 6호 도움을 올리면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최근 6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도 기록했다.

손흥민의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총 17개(프리미어리그 4골 6도움, 챔피언스리그 5골 2도움)로 늘었다.

손흥민은 88분을 뛰고 토트넘이 승리를 굳힌 후반 43분 지오바니 로 셀소와 교체됐다.

시즌 중 사령탑을 교체한 토트넘은 모리뉴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이후 프리미어리그 2경기를 포함한 3경기에서 모두 승전가를 불렀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시즌 첫 연승을 거둬 5승 5무 4패(승점 20)가 됐다.

한편, 토트넘의 사령탑으로 부임한 후 3연승을 거둔 조제 모리뉴 감독이 '멀티 도움' 활약을 펼친 손흥민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리뉴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골은 없었지만,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무사 시소코의 골 때) 아름다운 크로스는 골의 절반과도 같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배선우, 리코컵 투어 챔피언십 우승

신지애는 JLPGA 투어 사상 첫 60대 타수 기록

배선우(25)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리코컵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억2천만엔) 우승을 차지했다.

배선우는 1일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의 미야자키 컨트리클럽(파72·6천53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기록해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했다.

우승 상금 3천만엔(약 3억2천만원)을 받은 배선우는 올해 8월 홋카이도 메이지컵에 이어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라 시즌 2승을 달성했다.

공동 2위 시부노 히나코, 후루에 아야카(이상 일본)의 7언더파 281타와는 4타 차이를 냈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JLPGA 투어 39개 대회에서 총 9승을 합작했다.

신지애(31)가 3승, 이민영(27)과 배선우가 2승씩 기록했고 이지희(40)와 황아름(32)이 1승씩 힘을 보탰다.

한편 이번 시즌 신지애는 JLPGA 투어 사상 최초로 시즌 평균 타수 60대를 기록했다.

이 대회 전까지 평균 69.8882타를 친 신지애는 이번 대회를 4언더파 284타, 공동 7위로 마쳤다. 시즌 최종 평균 타수는 69.9399타가 됐다.

그러나 시즌 상금 1위는 스즈키 아이(일본)에게 돌아갔다.

이 대회 전까지 스즈키가 시즌 상금 1억5천302만엔으로 1위, 신지애는 1억3천803만엔으로 2위였는데 이번 대회에서 스즈키가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5위에 올라 신지애보다 높은 성적을 내면서 상금왕을 굳혔다.

스즈키는 2017년 이후 2년 만에 상금 1위에 복귀했다. 지난해 상금 1위는 안선주(32)였다.

올해 상금 순위는 스즈키가 1억6천18만엔으로 1위, 시부노가 1억5천261만엔으로 2위에 올랐고 신지애는 1억4천227만엔으로 3위로 밀렸다.

메르세데스 포인트 랭킹에서는 시부노가 555.5점으로 1위에 오르는 등 개인 기록 주요 3대 부문인 상금(스즈키), 대상 포인트(시부노), 평균 타수(신지애) 1위가 모두 다른 얼굴로 채워졌다.

한국 선수들은 JLPGA 투어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사이에 상금 1위를 7번이나 차지했다.

안선주가 2010년, 2011년, 2014년, 2018년에 상금왕에 올랐고 전미정(37)이 2012년, 이보미(31)가 2015년과 2016년에 상금 1위에 등극했다.

지난해 상금 2위였던 신지애는 사상 최초의 한국과 미국, 일본 투어 상금왕 석권에 도전했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연합뉴스